

# 조선총독부 편수관 아시다 에노스케(芦田惠之助)와 조선동화 고찰\*

- 조선총독부 『조선동화집』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金 廣 植\*\*

kwangsik21@gmail.com

李 市 竣\*\*\*

sjlee@ssu.ac.kr.

## 〈 目 次 〉

- |                             |                    |
|-----------------------------|--------------------|
| 1. 序論 - 이민족 학습용 국어(일본어) 교과서 | 3. 아시다독본과 설화수록의 의미 |
| 2. 아시다독본과 조선 체류             | 4. 개작의 양상과 그 분석    |
|                             | 5. 結論              |

Key word : 조선동화집(Collection of Korean fairy tales), 아시다 에노스케(Enosuke Ashida), 개작(Rewrite), 설화(Folktale), 식민지교과서(Textbook under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 1. 序論 - 이민족 학습용 국어(일본어) 교과서

본고에서는 제 2기 조선총독부 국어(일본어) 교과서(『보통학교 국어독본』 조선총독부, 1923-4)를 총괄한 아시다 에노스케(芦田惠之助, 1873-1951)와 그가 개작한 조선동화의 내용을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3-2012S1A5A2A03033968)

\*\* 숭실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근대문화사

\*\*\* 숭실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일본문학

최근 조선총독부(이하 총독부) 편찬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교과서 편찬자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sup>1)</sup> 특히, 총독부 일본어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그 편찬자의 이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연구가 요청된다.

아시다독본을 비롯한 총독부편찬 일본어 교과서는 모어(母語)를 조선어로 하는 조선아동의 일본어 ‘보급’을 위해 고안된 교과서다. 즉, 총독부는 일본어를 강제 주입시키려 노력했으나, 모어를 달리 하는 조선인 아동을 위해 일본어 교과서에 세심한 요구를 필요로 했다. 예를 들어 일본어 가나 표기법을 ‘내지’ 문부성 교과서와 달리, 대만총독부 교과서는 대만인 아동을 배려해 표기법을 실제 발음과 거의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 교과서는 대만식 실제 발음과 일본 ‘내지’ 문부성 교과서 표기 방식을 절충한 독자적 표기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표기법뿐만 아니라, 교재 선택 등 전 방위에 걸쳐 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일시동인’을 표방한 제국일본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하겠다.

“아시다 에노스케가 조선총독부 편수관으로서 편찬한 『보통학교 국어독본』은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엘이세프(Serge Elisseef)와 라이사워(O. Reishauer)가 펴낸 『대학생을 위한 초등일본어 (Elementary Japanese for University Students)』로 간행되었다.”<sup>2)</sup>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간행된 영어판 『대학생을 위한 초등일본어』(1941.5)가 조선인 아동을 위해 발간된 일본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일본의 철학자 쓰루미 슌스케는 다음처럼 지적하였다.

이민족에 의한 일본어 학습이 일본어 합리화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하는 지표가 된다. 아시다 자서전에 의하면, 예를 들며 관동대지진 당시에 조선인학살을 어느 정도 변호하는 부분 등이 있다. 아시다 에노스케가 일본 제국주의적 지배 도구로 활용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자각을 지녔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 
- 1) 조선총독부 교과서 편찬자에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글을 참고 김광식(2012) 「조선총독부 편찬 일본어교과서 『국어독본』의 조선설회 수록 과정 고찰」 『연민학지』18 pp.95-97.
  - 2) 大塚浩(1993) 『蘆田惠之助編纂『普通學校國語讀本』の海外受容—『大学生のための初等日本語』(Elementary Japanese for University Students)の考察を通して』 『国語科教育』40 p.123.

일본어 속에서 불필요한 한자, 단어, 표현을 제외하여 일본의 생활양식과 다른 민족에게도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합리화 한 일본어의 형태를 조선인용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sup>3)</sup>

철학자 쓰루미의 지적처럼, 아시다의 전집을 보면 해방전과 해방후에 아시다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선’ 동화주의 언설이 산견되며, 그의 일본어 교과서가 제국주의 질서 안에서 조선의 일본어 보급을 위해 활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모어를 달리하는 조선 아동을 위해 내용을 이민족에게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민지 시기 일본어 교과서에 대한 양면적 접근이 요청된다. 즉, 총독부 교과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민족에게 효과적으로 일본어를 학습시키기 위해 쉽고, ‘현지화’ 된 교과서가 시도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그런 면에서 아시다의 일본어 교과서에 조선의 전래동화가 다수 수록되어 그 ‘향토화’, ‘현지화’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민족인 조선인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일본어를 보급시키기 위해 활용·보급된 제 2기 『보통학교 국어독본』(이하 국어독본, 또는 아시다독본)에 수록된 아시다의 조선설화와 조선총독부『조선동화집』을 구체적으로 비교 대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초에 시도된 조선동화의 개작 양상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아시다독본과 조선 체류

1873년 효고현에서 태어난 아시다는 고학하며 1899년 동경고등사범학교 부속소학교 교사가 되어 1917년부터 문부성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후, 이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 편수관으로 임명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21년 10월부터 1924년 4월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편수관으로 근무하였다. 아시다는 “조선의 국어독본만큼 발로 쓴 것은 없을 것이다”고 자부했듯이

3) 実践社編(1957) 『回想の芦田恵之助—その人と業績』 実践社 pp.76-77.

조선의 풍습, 사상을 교재화하기 위해 조선 각지는 물론이고 ‘만주’까지 방문하여 교재를 수집했다.<sup>4)</sup>

그러한 조선 체재기간의 여행 중,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곳이 경주였고, 이를 안내한 이가 바로 경주고적보존회의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 1877-1974)다. 오사카는 당시 경주 보통학교 교장에 재직중이었고, 아시다와 함께 1922년부터 3년간 조선총독부 교과서조사위원회에 참가하여, 여기에서 첫 대면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에 부임하고 나서 일년이 지나려는 1922년 가을,<sup>5)</sup> 아시다는 오사카의 안내로 경주를 체험했고, 특히 석굴암에 매료되었다.

나는 좀처럼 이 굴을 나갈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어도 흥이 다하지 않았지만 겨우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사카군이 “무척 마음에 드셨나보군요. 십일면관음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굴 안에서 느낀 것을 말했습니다. 굴 안에 있던 시간이 2시간이었음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sup>6)</sup>

2시간이나 석굴암을 감상한 아시다는 『제이읽기수업』에서도 “석굴암의 석가만큼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고 전제하고 다음처럼 언급했다.

나는 오사카군에게 말했습니다. “목포에서 출장을 마치고 아직 여비가 남으면 만나질 나라 박물관에 다녀오겠습니다.” 목포에 도착해 여비를 세니, 충분히 나라에

- 
- 4) 芦田惠之助(1924) 『尋常小學國語小讀本卷一編纂趣意書』 芦田書店 p.4. 아시다와 조선 독본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梁永厚(1983) 『芦田惠之助의『朝鮮國語讀本』』 『季刊三千里』34; 福田須美子(1986) 『芦田惠之助의朝鮮國語教科書』 『國學院大學教育學研究室紀要』21; 大塚浩(1994) 『境界領域研究としての國語科教育と日本語教育—『普通學校國語讀本』卷五から卷八の考察を中心に—』 『學校教育學研究』6; 島崎惠理子・関正昭(2009) 『芦田惠之助編纂『普通學校國語讀本』の二面性』 『東海大學紀要留學生教育センター』29; 北川知子(2006) 『國語教育と植民地: 芦田惠之助と『朝鮮讀本』』 『植民地教育史研究年報』8. 이처럼 일본에서는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시다는 존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시다의 설화연구 및 신라 설화 교재화 과정에 대해서는 김광식(2012), 앞의 논문 pp99-101을 참고.
- 5) 朝鮮總督府(1925) 『普通學校國語讀本編纂趣意書卷六』 朝鮮總督府 p.10.
- 6) 芦田惠之助(1950) 『惠雨自傳』 開闢社 『芦田惠之助國語教育全集』25, 明治図書, 1987 p.213.

갈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경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산으로 가서 나라를 향했습니다. 반나절 박물관에 들어가 수많은 불상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명작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석굴암 석가를 대하고, 관세음을 대하고, 사보살을 대하는 것 같은 그리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경주는 역시 나라의 형인가, 하고 조금 서운함을 느꼈습니다.7)

아시다는 ‘내지’의 나라 박물관 전시물을 보고 경주 석굴암에 비해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석굴암에 매료되어 경주 문화의 우위성을 인정한다. 아시다독본에는 <나라>와 <석굴암>이 수록되었고, 이 단원은 이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교재화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8)

실제로 제 1기와 제 2기 일본어 교과서에 실린 조선과 일본의 설화는 <표 1>과 같다. 밑줄은 일본설화에 해당된다. 아시다가 총독부 교과서 편찬 후에, 일본에 귀국하여 발간한 『尋常小学国語小読本』(전10권, 아시다서점, 1924-7, 이하 아시다소독본으로 표기)에서도 계속해서 조선 설화를 수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처럼, 제 1기 국어독본이 <모모타로> <꽃피우는 할아버지> 등 일본 설화를 다수 수록한 데 비해, 아시다는 닌토쿠(仁徳)천황(권5-9)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편이 넘는 조선 설화를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불가결하다.

<표 1> 제1기, 2기 국어독본과 아시다 소독본에 수록된 한일 설화 단원

권	1 期『国語読本』卷1-8,1912-5	2期『国語読本』卷1-8,1923-4, 文部省『尋常小学国語読本』卷9-12,1922-23	아시다소독본『尋常小学国語小読本』1924-7
1		범보다 무서운 꽃감	
2	<u>29~31모모타로</u>	30세 개의 보물	25알의 임금님
3	4~6 <u>꽃피우는 할아버지</u>	10꽃 향기 19거북이 사신 30사이좋은 형제	21해와 달의 빛(연오랑 세오녀) 26물 속의 구슬

7) 芦田惠之助(1925) 『第二讀み方教授』芦田書店 『芦田惠之助国語教育全集』7, 明治図書, 1987 p.399.

8) 아시다의 경주 체험과 교재화 과정에 대해서는 김광식(2012), 앞의 논문 pp.104-106을 참고.

4	14스사노오 18神武天皇 22알에서 태어난 왕 24巴提便	11바가지 이야기 26복숭아 열매	
5	4日本武尊 11応神天皇 21孝子萬吉	3三姓穴 9仁德天皇 26오작교	5-12七夕
6		5昔脱解 14萬壽 26은혜 모르는 범	5濟州島
7		6李坦之	
8	3天日檜(일본서기)	14일신 월신(연오랑 세오녀)	

밑줄은 일본에서 전래되는 일본설화다.

### 3. 아시다독본과 설화 수록의 의미

아시2다가 수록한 설화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라 설화 및 한일 고대의 관련 설화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그 중, ‘내선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신라 초기의 재상 호공의 <바가지 이야기>, 신라 4대왕 <석탈해>, <일신월신(연오랑 세오녀)>,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 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檜>, 제주도 신화 <삼성혈>, 고대 일본에서 백제로 파견된 <巴提便> 등을 수록했다. 그 중 석탈해에 대해 취의서 등에서 다음처럼 주장하였다.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신라 제4대왕 석탈해는 다파나국(多婆那国)에서 큰 알로 태어났다고 전설적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9)

구니비키(신라를 끌어 당겨 국토를 생성했다는 일본 이즈모의 신화-인용자) 정신이 조선에는 완전한 전설, 일월의 정기(연오랑세오녀-인용자)가 되어, 더욱 세밀하고 더욱 각색되어 남아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조선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조선에 있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조선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은 자로서 준비 부족이라

9) 芦田惠之助(1950) 『惠雨自傳』 『芦田惠之助国語教育全集』25, 明治図書, 1987 p.204.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 정사(正史)에 번듯하게 남아 있는 신라 제4대왕 석탈해의 사실은 내선용화 재료로 귀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sup>10)</sup>

위의 인용문은 내선용화에 대한 아시다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시다는 이즈모의 구니비키(신라를 끌어 당겨 국토생성) 설화, 일월의 정기(연오랑 세오녀), 석탈해 탄생담, 제주도 신화 삼성혈, 나라와 경주의 유사성을 열거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탈해의 사실은 내선용화의 재료로 귀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시다는 “내게 있는 것을 조선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조선에 있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조선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은 자로서 준비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1기 일본어 교과서에는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신라를 지배했다는 일본신 <스사노오> 전설이, 4기에는 <구니비키>가 수록되어 내지 설화를 강요하였다 하겠다. 이에 대해, 아시다는 ‘내지’설화를 강요하지 않고, 조선에서 전승되는 내선용화 전설을 수록함으로써, 조선 지배자로서 조선인 아동의 동화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제2기의 아시다독본이 ‘문화정치’의 소산이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아시다는 ‘내지’의 전설이나 동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조선에서 전래되는 ‘내선용화’ 소재를 발굴하여, 이를 교재화 하는 게 조선을 통치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사료된다. 설화의 스토리성에 주목해, 이민족인 조선아동이 흥미를 지니고 일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조선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 2기 아시다독본에 조선설화가 가장 많이 수록된 배경으로는 조선 아동에게 친근한 소재를 통해 일본어를 지도하려는 아시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sup>11)</sup> 또한 아시다독본에는 한일 관련전설 이외에도 조선 민담(구전설화)이 다수 개작되어 수록되었다. 이하에서는 아시다가 조선 민담을 수록하는 과정을 복원하고, 그 개작 양상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계자 중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곤도 도키지(近藤時司), 다지마 야스히데(田島泰秀),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 다나가 우메키

10) 芦田惠之助(1925) 『第二讀み方教授』 『芦田惠之助国語教育全集』7, 明治図書, 1987 p.417.

11) 조선총독부의 조선 구비문화 조사와 그 수록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 김광식(2013) 『일본 문부성과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구비문화 조사와 그 활용』 『연민학지』20 pp.256-262.

치(田中梅吉) 등이 설화집을 간행했는데, 다나카는 1909년 7월에 동경제국대학 독문과를 졸업하고, 그림 동화를 비롯한 아동문학 연구에 종사 후, 1916년 10월 말에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총독부 임시교과용도서 편집사무촉탁’으로 근무하며 조선 구비문학을 채집했다. 다나카는 1917년에 학무국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다나카는 1921년 5월에 총독부의 알선으로 독일 유학을 떠나, 1924년 6월에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처럼 1916년 10월 말에 조선에 건너온 다나카는 조선 구비문학에 관심을 지니고 이를 수집했는데, 1917년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다나카는 학무국 내 조선교육연구회에서 발간된 교육잡지 『조선교육연구회잡지』 19호(1917)에 「동화 이야기(童話の話 附朝鮮人教育所感)」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20호에서 30호까지 열 차례에 걸쳐 「조선동화·民謠·俚諺·謎」를 연재했는데,<sup>12)</sup> 그 중 조선 구전설화는 1917년에 총 8편을 수록하였다. 이 8편은 모두 『조선동화집』에 재수록 되었다. 『조선동화집』과 아시다독본에 수록된 공통의 조선 설화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 4. 개작의 양상과 그 분석

필자의 연구에 의해, 조선총독부편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8편의 원전이 명확해지면서, 『조선동화집』과 국어독본의 구체적인 개작양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적어도 8편의 1917년 잡지 보고와 『조선동화집』 수록 설화의 줄거리는 거의 일치한다. 다나카는 1910년대 수집한 설화를 1920년대에 아동을 위한 동화로 재화하였는데, 본래의 내용을 2배 전후로 늘려서 개작하고 감성적인 표현을 삽입하여, 식민지 아동들에게 천황제 근대국가에 어울리는 착한 어린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화 목적으로 설화를 이용했음을 확인하였다.<sup>13)</sup> 설화 연구자로서 다나카는 본래 설화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며, 아동을 위한 동화로 개작했다고 보인다.

12) 김광식·이시준 「다나카 우메키치와 조선총독부편 『조선동화집(朝鮮童話集)』 고찰」 『일본어문학』 61집, 2013. p.228.

13) 김광식·이시준, 위의 논문, 2013. p.238



&lt;표 2&gt; 『조선동화집』과 국어독본에 수록된 공통의 조선 설화

1917년 잡지수록	1924년 『조선동화집』	국어독본(1923)	보고처
동화(20호)	17어머니를 버리는 사내		경성水下洞공립보통학교
은혜 모르는 호랑이(21)	16은혜 모르는 호랑이	6-26은혜 모르는 호랑이	全道중, 江原道洪川공립보통학교
세계의 구슬(22)	15세계의 구슬		경기도파주군泉峴外牌面
두꺼비의 보은(23),	12두꺼비의 보은		평남 강동공립보통학교
검은 짓과 노란 짓(24)	6검은 구슬과 노란 구슬		함북 회령군
여우와 개 싸움(25)	2원숭이의 재판		충북 청풍군
불쌍한 아이(26)	20불쌍한 아이	6-14만수(萬壽)	강원도 원주군
교활한 토끼(27)	7교활한 토끼		충남 한산공립보통학교
	1물속의 구슬	3-30사이좋은 형제	
	9선녀의 깃옷	4-26복숭아 열매	함경북도 회령군(14)
	11거북이 사진	3-19거북이 사진	
	21겁먹은 호랑이	1권 범보다 무서운 꽃감	
	22세계의 보물	2-30세계의 보물	

<표 2>의 보고처는 1917년『조선교육연구회잡지』에 기재된 사항이다. 다나카는 1913년과 1917년에 실시된 총독부 학무국의 설화 조사보고서 중 그 일부를 잡지에 연재한 것이다.<sup>15)</sup>

<표 2>와 같이, 아시다독본에는 십여 편의 조선설화가 수록되었는데, 그 중 『조선동화집』과 중복되는 공통의 설화는 7편 존재한다. 여기에는 전설의 일부와, 아시다가 수록한 민담 모두가 『조선동화집』에도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그 후대의 영향력이 컸다고 고려된다. 특히, <6-14만수>와 <6-26은혜 모르

14) 조선총독부 『朝鮮童話集』에 수록된 <선녀의 깃옷>의 본문은 총독부 기관지 『朝鮮』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한데, ‘함경북도 회령군 보고’라고 명기되었다. 編輯學人(1921) 『天女の羽衣』, 『朝鮮』72 p.130.

15)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1912년, 1913년, 1917년 구비문학 실시 대조표는 김광식(2013) p.264를 참고.

는 호랑이>는 1917년의 잡지에 그 원전을 확인할 수 있어, 그 개작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17년의 잡지를 통해서 원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공통되는 설화는 <1권, 범보다 무서운 곳감>, <2-30세개의 보물>, <3-19거북이 사신>, <3-30사이좋은 형제>, <4-26복숭아 열매> 5편이다. 이하에서는 공통되는 설화 7편의 분석을 통해, 1920년대에 행해진 설화의 개작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일본에 귀국 후 가족이 운영한 아시다서점에서 일본인 아동 보충교재로 간행된 아시다소독본(1924-7)과 아시다의 기록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겠다. 먼저 원문을 확인 가능한 <6-14만수>와 <6-26은혜 모르는 호랑이>가 어떻게 개작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겠다.

<표 3> <6-14만수>의 내용 비교

『朝鮮教育研究會雜誌』26 (1917) p.66-7.	다나카『朝鮮童話集』(1924) p.129-134.	국어독본6(1923) p.48-56.
<p>불쌍한 아이 옛날 어느 곳에 만수라는 불쌍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의지가 되는 부모님은 어릴 적에 사별하고, 게다가 집은 매우 가난했으므로 어릴 적부터 다른 집에 고용돼 지계를 지거나 물을 길거나 여러 잡일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p> <p>만수는 솔직한 데 반해, 주인은 매우 마음씨 나쁜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만수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래 저래 부려져 조금도 쉴 수 없고 또한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다. 그러나 만수는 이를 조금도 고통스럽게 생각지 않고 잘 참고 잘 견디며 항상 힘차고 충실히 일했습니다. (중략) (설날에) 한 마리 사슴이 급히 달려와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중략) 잠시 후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 와 (중략) 다른 쪽</p>	<p>불쌍한 아이 옛날 어느 곳에 만수라는 불쌍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의지가 되는 부모님은 어릴 적에 사별하고, 게다가 집은 매우 가난했으므로 어릴 적부터 다른 집에 고용돼 지계를 지거나 물을 길거나 여러 잡일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p> <p>만수는 솔직하고 온화한 아이였는데, 주인은 매우 무자비한 사람으로 불쌍한 만수를 가련하게 여겨 감싸안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부려먹고 조금도 쉴 새를 주지 않고, 또한 잔소리가 끊일 때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이를 조금도 고통스럽게 생각지 않고 잘 참고 잘 견디며 항상 힘차고 충실히 일했습니다. (중략) (설날에) 한 마리 사슴이 급히 달려와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중략) 잠시 후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 와 (중략) 다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중략) 만수는 사슴이 말하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자 (중략) 만수는 시험 삼아 풀을 조금 뜯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에 든 풀은 점점 무거</p>	<p>14만수 옛날 어느 곳에 만수라는 불쌍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어릴 적에 사별하고, 집이 가난했으므로 어릴 적부터 다른 집에 고용돼 지계를 지거나 물을 길거나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p> <p>만수는 솔직한 아이였는데, 그 주인은 조금도 배려심이 없는 사람으로, 만수를 아침부터 밤까지 부려먹고, 게다가 잔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잘 참으며 항상 건강하게 일했습니다. (중략) (설날에) 한 마리 사슴이 이쪽을 향해 급히 달려 왔습니다. 사슴은 만수를 보고 부탁했습니다.</p> <p>“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중략) (중략) 그때 사냥꾼이 왔는데 사슴이 없으므로 급히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중략) 만수는 사슴이 말하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자</p>

<p>으로 달려 갔습니다. (중략) 만수는 사슴이 말하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자 (중략) 만수는 한 손으로 풀을 들고 산을 내려오자, 신기하게도 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왜일까 하며 풀을 보자, 풀은 어느 사이에 세상에 진귀한 훌륭한 인삼으로 변해 있었고, 그 뒤 만수는 인삼 덕분에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강원도 원주군 보고에 의함)</p>	<p>워졌습니다. 이것이 웬일일까 하며 손에 쥔 풀을 보니, 풀은 어느 사이에 세상에 진귀할 정도로 훌륭한 인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 인삼을 매우 고가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만수는 항상 이 풀을 산에서 캐어, 이를 시장에 팔아 결국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렇게 행복한 신분이 되었지만, 항상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을 잊지 않았으므로, 결국 많은 사람들로 부터 매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p>	<p>(중략) 만수는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 풀을 조금만 뜯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걷는 동안에 풀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풀을 보자니 어느 사이에 인삼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그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에도 때때로 그 풀을 뜯어 와서 팔다보니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p>
---	--	--

<이하 밑줄은 필자>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어머니를 버리는 사내> 및 <교활한 토끼>의 개작양상을 검토했는데, 줄거리 자체의 개작은 최소화하여 머물렀음을 설화의 원전을 통해 명확히 하였다.<sup>16)</sup> 후술하듯이, 본고에서 다룬 7편의 설화 역시 줄거리 자체의 개작은 최소화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의 줄거리 왜곡 여부에 대한 비실증적이고 지엽적인 비판을 넘어서, 텍스트의 전반적 개작 양상을 규명하여, 개작의 실체와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고려된다.

<만수>는 3학년 2학기 교재에 수록되었는데, 1917년에 원주군에서 보고된 설화를 바탕으로 다나카와 아시다가 개작했음은 <표 3>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줄거리가 완전히 일치하며, 다나카와 아시다는 1917년 보고를 바탕으로 아동용으로 감정을 이입하여 동화화 하였다. 1917년 보고에는 솔직한 만수에 대해, 주인은 ‘매우 마음씨 나쁜 잔혹한 사람(仲々意地の悪い残酷な人)’으로, 다나카는 ‘매우 무자비한 사람(非常に無慈悲な人)’으로, 아시다는 ‘조금도 배려심이 없는 사람(少しも思いやりのない人)’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1917년에 공개된 설화는 만수가 사슴의 도움으로 귀한 인삼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고 간략히 보고되었는데, 다나카의 『조선동화집』에서는 인삼을 얻고, 그 이후로도 항상 인삼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이 부분은 아시다독본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조선동화집』에는

16) 김광식·이시준(2013), 앞의 논문 p.231-237.

만수가 부자가 되어서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 ‘매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후일담을 추가되어 교훈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아시다는 『취의서』에서 “조선의 아동은 이 만수를 이상(理想)으로 하여 항상 건강히 일하며, 불행한 이에게 진심으로 동정심을 갖게 하고 싶다.”고 수록 의도를 밝혔다.<sup>17)</sup> 다나카의 구체적인 서술에 비해, 아시다는 간략하게 설화를 개작하여 교과서에 수록했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설화에서도 공통되는 점이다.

<표 4> <6-26은혜 모르는 호랑이>의 내용 비교

『朝鮮教育研究會雜誌』21 (1917) p.62-3.	다나카『朝鮮童話集』(1924) p.100-109.	국어독본6(1923) p.101-110.
<p>은혜 모르는 호랑이 옛날 어느 나그네가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도중에서 한 함정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호랑이는 구멍 속에서 나그네를 향해, 애써 슬픈 소리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p> <p>“저기 나그네님, 제발 저를 구해 주세요.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제발...”</p> <p>나그네는 이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 호랑이를 구해 줄까 생각했지만, 원래 잔혹한 호랑이기에 선뜻 도울 수도 없어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전보다 더욱 애절한 목소리로 (중략). 그러나 어떨까요. 호랑이는 도울반야 구멍에서 나오자 마자, 태도가 달라져 무서운 기세로 나그네에게 달려들어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중략) 나그네는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략) 어때요, 누군가에게 재판을 부탁해 보죠. 재판에서 제가 지면, 그때 말없이 이 몸을 호랑이님께 드리죠. (중략) 소에게 다가가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소는 매우 화난 얼굴로 음메 - 하고 말했습니다.</p> <p>“그럼 다른 이에게 재판을 부탁하죠. 그 재판에서</p>	<p>16은혜 모르는 호랑이 옛날 호랑이 한마리가 함정에 호랑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호랑이는 죽게 됩니다. 호랑이는 열심히 함정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난처해 있을 때 마침 한 나그네가 지나갔습니다. 다행이라며 호랑이는 함정 속에서 나그네를 부르며, 매우 애절한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p> <p>“저기 나그네님, 제발 저를 함정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빼내 주시면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발...”</p> <p>이 말을 들은 나그네는 불쌍히 여겼지만, 원래 잔혹한 호랑이기에 선뜻 도울 수도 없어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더욱 애절한 목소리를 내며 (중략). 감사를 전할 것으로 생각했더니, 이전의 애절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무서운 기세로 나그네에게 달려들어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중략) 나그네는 호랑이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중략) 어때요, 누군가에게 재판을 부탁해 보죠. 재판에서 제가 지면, 그때 말없이 이 몸을 호랑이님께 드리죠. (중략) 소에게 다가가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소는 매우 화난 얼굴로 음메 - 하고 말했습니다.</p> <p>“대체로 인간이란 놈들은 은혜를 모른다. (중략) 그 큰 은혜를 완전히 잊고</p>	<p>26은혜 모르는 호랑이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가려고 애졌지만 도저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함정 속에서 죽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는 함정 속에서 애절한 소리를 내어</p> <p>“여보세요. 제발 저를 구해 주세요.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p> <p>나그네는 불쌍히 여겨, 호랑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가 필시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더니, 호랑이는 한마디 예도 없이, 나그네에게 달려들어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나그네는 깜짝 놀라</p> <p>“이건 너무나 은혜를 모른다. 너는 방금전에 내가 구해준 것을 벌써 잊었느냐”하고 말했습니다.</p> <p>“(중략) (나그네는) 누군가에게 물어보자.” 나그네와 호랑이는 소에게 다가가 (중략) 사정을 말했습니다. 소는 “인간이 나</p>

17) 朝鮮總督府(1925) 『普通學校國語讀本卷六編纂趣意書』朝鮮總督府 p.20.

<p>지면 저를 잡아 먹으시오.”(중략) 소에게 다가가 재판관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가 말하길</p> <p>“대체로 인간은 은혜를 모른다. (중략) 지금까지의 은혜를 잊고 잡아먹으려는 무자비한 놈들이다. 호랑이님 잡아 먹어요. (중략) (중략) (나그네는) 나무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나무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중략) 여우한테 가서, 마지막 재판관을 부탁했습니다. (중략) (여우는) 실제 장소를 본 후, 호랑이님 말이 정말인지 그 위에서 재판하죠.”(중략)</p> <p>여우는 “알겠습니다. 호랑이님은 역시 원래대로 구명속에 계세요. 또 나그네님도 원래대로 이 길을 가세요. 이것이 가장 좋은 재판입니다.”</p> <p>하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전국적, 강원도 홍천 공립 보통학교 보고에 의함)</p>	<p>우리들을 죽여 그 고기까지 먹으려는 것이다. 이런 은혜 모르는 것은 호랑이님에게 먹히는게 당연하지.(중략)(중략) (나그네는) 큰 나무에게 가서 재판관을 청했습니다. (중략) (나그네는) 생각 끝에, 여우 아저씨는 지혜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판결 받으려고 생각해 (중략) (여우는) 먼저 그 장소가 가서 당신(호랑이) 말이 정말인지 검증한 후 하죠. (중략) (중략) 즉 호랑이님이 원래대로 함정속에 있으면 그걸로 됐고, 또 나그네도 그대로 호랑이님 따위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감정을 가면 되요. 이것이 어느쪽에게도 공평한 재판이죠. 그럼 저는 이만.”</p> <p>하고 여우는 서둘러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그네도 뜻밖의 판결 덕분에 생명을 건져 매우 기뻐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p> <p>매우 의외의 재판 결과에 호랑이야말로 도리어 놀라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이 나그네에게 기다려 달라고 탄원했지만, 나그네는 이미 호랑이 말을 듣지 않고,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정에 남겨진 호랑이는 과연 어찌되었을까요?</p>	<p>뿐다. (중략) 우유를 취하고, 죽여 고기를 먹기도 한다. 인간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당연하지.” 하고 말했습니다. (중략) (나그네는) 소나무에게 갔습니다. (중략) (나그네는) 한번 더, 여우에게 물어보자 (중략) (여우는) 먼저 나는 호랑이가 어떤 식으로 함정에 빠지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중략) “호랑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았지요.” 그리고 호랑이를 향해 “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울바름을 저절로 알겠죠.” 하고 말했습니다.</p> <p>나그네와 여우는 가벼워졌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함정 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끝</p>
---	--	---

<표 4>와 같이 <은혜 모르는 호랑이>역시 문장이 매우 유사하다. 다나카와 아시다는 원문의 줄거리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아시다는 간략히 호랑이를 바로 구해 주고, 나무를 큰 소나무로 변형했다. 이에 비해 다나카의 개작은 보다 구체적이다.

1917년의 잡지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화집과 공통으로 아시다독본에 수록된 설화는 <1권 범보다 무서운 곳감>, <2-30세개의 보물>, <3-19거북이 사신>, <3-30사이좋은 형제>, <4-26복숭아 열매> 5편이고,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원전을 참고로 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1권 범보다 무서운 곳감>은 대표적 우리 설화인데, 1학년 1학기 교재 마지막 부분에 실렸다.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인 아동을 위해, 의태어를 반복 사용하였고, ‘깊은 산속 큰 호랑이’가 배가 고파 마을에 내려와 아이가 우는데, 엄마가 ‘산고양이’, ‘큰뱀’,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지만, 곳감으로 그치자 호랑이가 놀라 달아난다는 전반부만을 수록하였다. 아시다는 1학년

교재로 회화체를 중심으로 개작했지만, 『조선동화집』의 <겁먹은 호랑이>와 줄거리 및 이야기 전개가 완전히 일치한다. 『조선동화집』에는 후반부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도둑이 놀라 호랑이를 소로, 소는 도둑을 무서운 곳감으로 착각하여, 도둑이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다가 호랑이임을 눈치 채고 나무에 올라타 구멍에 숨었는데, 토끼가 실은 사람이라고 호랑이에게 알려준다. 도둑이 토끼 꼬리를 잡아당겨, <토끼 꼬리가 짧은 연유>라는 모티브가 추가되었다. 본 설화는 일본어 교육을 진작시키기 위해 소화(笑話)의 재미에 착목한 교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30세개의 보물>은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표 5>처럼, <세개의 보물>은 원래 3형제 중 막내가 형들에게 쫓겨나지만 선행을 통해 성공해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아시다는 이 설화에서도 전반부와 후반부의 화소를 생략했다. 1학년 교재라는 점에서 양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표 5> <2-30세개의 보물>의 내용 비교

다나카『朝鮮童話集』(1924)p.143-150.	국어독본2(1923)p.72-82.
<p>22세개의 보물</p> <p>옛날 어느 곳에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중략) 죽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셋 중 위 둘은 매우 욕심쟁이로 막내 재산을 가로채 (중략) 내쫓았습니다. 마을에서 내쫓긴 동생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 이쪽저쪽 돌아다니며 어느 강가에 왔습니다. 강에는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에서 동생은 한 나이는 승려를 만났습니다. 승려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전신이 때와 먼지로 더럽혀지고 매우 야위어 있었습니다. (중략) 동생은 노승과 함께 겨우 한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산사에서는 장작을 모아 밥을 짓기까지 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중략) 어느날 노승이 동생을 불러 (중략) 표주박과 나무젓가락과 돛자리를 주었습니다. (중략) 소중히 손에 노승과 작별하고 자기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돛자리를 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돛자리는 금세 아름다운 이불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은 굉장한 집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략) 천천히 표주박을 들고 옆으로 기울여 보자, 과연 안에서 나오고 또 나오는 음식이란 음식의 어떤 맛있는 진귀한 것도(중략) 얼마든지 바라는 만큼 나왔습니다. (중략) 젓가락을 들고 때려보자 (중략) 많은 아름다운 여자와 사내가 나와서 음식을 넣어 주고, 식사 전반의 거들어 줍니다. (중략) 동생은 훌륭한 가마를 타고 종자를 데리고 자신의 마을을 향해 돌아갔는데, 길가에서 두사내가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략) (이야기를 듣고 형들도 동생</p>	<p>30세개의 보물</p> <p>다리 위에 나이든 스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몸은 매우 야위어 있었습니다. (중략) 그래서 젊은이는 스님 손을 이끌고 그 절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모아 밥을 지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p> <p>어느날 스님은 젊은이를 불러 (중략) 돛자리와 표주박과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것을 들고 절을 나왔습니다. (날이 저물어) 돛자리를 펴자, 그 돛자리는 이불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사이에 저택 같은 멋진 집이 그곳에 생겨났습니다. (중략) 이번에는 표주박을 옆으로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이 얼마든지 나왔습니다. (중략) 젓가락으로 짹짹 소리를 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여자와 아이가 나와서 그 음식을 넣어 주</p>

<p>홍내를 냄) 형들은 이제 완전히 자신들의 집도 재산도 없어져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찾아가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형들의 지금까지의 무정한 행위 등을 잊은듯이 마음 좋게 돌을 자기 집에 받아들여 친절하게 보살폈습니다.</p>	<p>있습니다. (중략) 젊은이는 그후 그곳에 살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끝</p>
---	---

<표 6>처럼 <사이좋은 형제>도 마찬가지로 전반부를 생략했다. <사이좋은 형제>는 2학년 1학기 교재에 포함되었다. <세계의 보물>이 식민지 조선의 아동에게 친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되었듯이, 본 설화 역시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기 위한 ‘수신적 교재’로 채택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6>처럼 일본인 아동용의 아시다소독본에도 이 설화가 2학년 1학기 교재로 같은 위치에 실렸는데, 조선 설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 아동을 위해 전반부를 충실히 기술했고, 그 서술은 『조선동화집』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같은 원전을 바탕으로 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다는 『취의서』에서 본 설화를 ‘순진의 극치’라고 상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만으로 조선의 자긍심’이라며, “이에 공명하는 아동의 마음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본 설화 역시 아시다가 간략히 설화를 개작한데 비해, 다니카는 지나치도록 착하고 친절한 동생의 모습을 교훈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표 6> <3-30사이좋은 형제>의 내용 비교

<p>다나가『朝鮮童話集』(1924) p.1-8.</p>	<p>국어독본3(1923) p.89-96.</p>	<p>아시다소독본 『尋常小学国語小讀本』319)</p>
<p>1 물속의 구슬 옛날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아직 어린 두형제가 있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중략) 가난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진실로 천만금이라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중략) 어느 날 형제는 근처 마을에 일이 있어서 외출했습니다. (중략) 이 아름다움도 네 마음의 아름다움과는 당할 수 없어 (중략) 그러자 둘은 한 강가에 왔습니다. 둘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며 강을 건넌습니다. 돌이 강 중간까지 오자, 바닥에 뭔가 예쁜 색 물건의 흔들이는 게 형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형이 그것을</p>	<p>30 사이좋은 형제 사이좋은 형제는 손을 잡고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강 중간 정도 왔을 때, 바닥에 뭔가 빛나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중략) “(중략) 형, 예쁜 구슬이 있어요.”하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그것을 들어 올리자, 훌륭한 진귀한 구슬이었습니다. (중략) 그리고 상자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그 상자를 열어 보았습니다.</p>	<p>26 물속의 구슬 옛날 어느 곳에 아직 어린 두형제가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한데다가 부모를 여의고, (중략) 생활은 이처럼 곤란 했지만, 둘의 마음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중략) 어느 날 형제는 근처 마을에 일이 있어서 외출했습니다. (중략) 아무리 아름다워도 네 마음의 아름다움과는 비교가 안 돼(중략) 그러자 둘은 강가에 왔습니다. 다리가 없으므로 둘은 손을 잡고 강을 건넌습니다. 강 중</p>

18) 朝鮮總督府(1925) 『普通学校国語讀本卷二編纂趣意書』朝鮮總督府, p.36, 37.

<p>들어 올리지 세상에서도 진귀한 훌륭한 구슬이었습니다. (중략) 그 구슬을 한 상자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형이 그 상자를 열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상자안 구슬 주위에 금은보화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략) 각자 자신의 집을 지어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중략) 정직한 둘은 구슬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할까 둘은 생각한 후 (중략) 원래 있던 장소에 두기로 했습니다. (중략) 형제는 하나의 구슬을 버리려다 두개의 구슬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슬 역시 전생주(錢生珠)였으므로 둘은 각각 하나씩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형제의 집은 더욱 부유해져 윤택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는 형제가 서로 사이가 좋아서 하늘의 은혜다”며 더욱 두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p>	<p>그러자 신기하게도 상자안 구슬 주위에 금과 은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략) (형제는)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략) 각자 자신의 집을 지어 살게 되었습니다. (중략) 정직한 둘은 구슬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궁리한 끝에 (중략) 원래 주는 강 속에 두고 오기로 했습니다. (중략) 형제는 구슬을 버리려다 또 하나의 구슬을 주었습니다. 구슬이 두 개가 되었으므로 둘은 하나씩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집은 더욱 부유해 졌습니다.</p>	<p>간 정도 왔을 때, 바다에 예쁜 구슬 같은 물결이 보였습니다. “뭣지.”하고 형이 그것을 주워보자 훌륭한 구슬이었습니다. (중략) 상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형이 상자를 열어 보자 신기하게도 구슬 대신에 금은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략) (형제는)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략) 각자 집을 지어 살게 되었습니다. (중략) 정직한 둘은 구슬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생각했습니다. (중략) 원래 강에 버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중략) 형제는 하나의 구슬을 버리려다 또 하나의 구슬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형제는 각자 구슬을 가지고 집은 더욱 부유해 졌습니다.</p>
---	---	---

<표 7>처럼 <3-19거북이 사신>은 『삼국사기』김유신전의 <토끼의 간>을 개작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나카와 아시다의 『삼국사기』원전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재화된 1910년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나카와 아시다의 즐거리와 서술방식은 매우 유사하다. 용왕의 공주가 병에 걸렸고, 용궁 도착 전에 거북이가 사실을 밝혀 속는 점 등이 완전히 일치한다.

<표 7> <3-19거북이 사신>의 내용 비교

<p>다나카『朝鮮童話集』(1924)p.69-78.</p> <p>11거북이 사신          옛날옛날 동해 바다 속에 용왕이 살았습니다. 용왕은 바다 속의 만물위에 군림하고, 바다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중략) 왕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단 하나의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최근 기분이 좋지 않고 몸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왕은 밤낮으로 상심해 바다속 모든 명에게 보이고</p>	<p>국어독본3(1923)p.54-61.</p> <p>19거북이 사신          옛날, 바다 속에 용왕이 살았습니다. 용왕은 단 하나의 공주가 병에 걸려서, 매우 걱정했습니다. 갖은 방법을 다해 보았지만 낫지 않습니다. 어느날 의사가 “토끼의</p>
---	--

19) 芦田(1924) 『尋常小学国語小説本』卷三 『芦田惠之助国語教育全集』13, 明治図書, 1987 pp.85-88.



갖은 방도를 다했지만, 이 병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느날 한 의사가 어전에 나와 말씀드렸습니다. “(중략) 토끼의 간을 취해, 그것을 약으로 조합해 드시면 반드시 나을 것이옵니다.”

용왕은 이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바닷에 있지 않습니다. (중략) 이때 대신 중에서 거북이가 나와 (중략) 왕은 이 사신을 거북이에게 명했습니다. (중략) 때마침 운쭙게 바닷가 근처의 풀위에 한마리 토끼가 헛살을 찢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거북이는 매우 친근하게 토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토끼씨, 저는 방방곳곳을 구경하고 다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섬처럼 좋은 곳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중략) 나무에는 나무 열매라는 열매는 무엇 이든 달려 있어요. (중략)

거북이는 토끼를 등에 태우자 바로 출발해 바다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중략) 2,30리 정도 육지를 떠났을때, 침묵하면 좋았는데, 역시 지혜롭지 않은 거북이는 말했습니다. (중략) 거북이는 자신이 용왕 사신으로 보내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토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본래 지혜가 뛰어난 토끼라서 금세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중략) 체내가 더러워진 탓이라 생각해서 우선 간을 빼내 씻고 바위 그늘에 놓은 상태에, 마침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중략) 육지에 도착하자, 토끼는 재빨리 거북이 등에서 뛰어내려 풀 속으로 달렸습니다. (중략) “(중략)처음에 나를 속인것은 누구냐. 네가 아니냐? 나를 속이고 자신이 속았다고 화내는 놈이 있냐?” 하고 내뱉듯이 말하고, 서둘러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간을 드시면 낫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용왕은 이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만, 토끼는 바닷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의 간을 찾아나서게 되었습니다. (중략) 마침 그곳에 토끼가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다가가 “저 토끼씨, 저는 당신을 마중나왔습니다. 좋은 곳에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중략) 맛있는 과일 많이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기뻐하며 거북이 등에 타고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거북이는 공주님이 병에 드셔서 토끼의 간을 취해, 약에 쓰신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이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토끼는 바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략) 배속 상태가 나빠서 간을 빼내, 바위 위에 말렸습니다. (중략) 언덕에 도착하자, 토끼는 거북이 등에서 뛰어내려 풀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속이려고 했으니, 나도 너를 속인 것이다. 어찌 간이 없이 살 수 있겠나?”

아시다는 일본어 교육을 위해 회화체를 의식해 기술했는데, 두개의 개작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두 작품의 개작이 최소화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426복숭아 열매>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설화는 효자가 선녀를 만나 천도(天桃)를 얻는다는 내용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朝鮮童話集』에 수록된 <선녀의 깃옷>의 본문은 총독부 기관지『朝鮮』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며, ‘함경북도 회령군 보고’를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6편의 설화는 줄거리 및 내용 개작이 최소화 되었는데, <표 8>처럼 아시다의 서술은 큰 변화를 보인다. 아시다 스스로도 “조선 재래의 동화를 다소 개작한 것이다.”고 밝혔다.<sup>20)</sup>

20) 朝鮮總督府(1925) 『普通学校国語読本卷四編纂趣意書』 p.27.

<표 8> <4-26복숭아 열매>의 내용 비교

다나카『朝鮮童話集』(1924)p.69-78.	국어독본4(1923)p.91-98.
<p>9선녀의 깃옷 북쪽의 북쪽 함경북도의 적적한 산기슭에 옛날옛날 한 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집에는 아버지 뿐이었는데, 그 아버지도 중병 때문에 오랫동안 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 병이 날도록 효자는 여러가지로 마음을 다했지만 가난해서 생각처럼 좋은 약도 살 수 없고, 좋은 의사도 모실 수 없어서, 병은 나날이 깊어감을 지켜보며 살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자는 평소 남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천상에 사는 선녀는 천도라는 인간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진귀한 복숭아를 지녔다. 그리고 그 복숭아를 먹기만 하면 인간의 병은 실령 어떠한 중병이든 금세 씻은듯이 나올뿐 아니라, 언제까지나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매일 “천도가 필요해, 필요해.”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었습니다.</p> <p>마침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효자는 아버지병을 염려하면서 길을 걸었는데, 너무 깊이 생각에 잠겨 어느사이에 길을 잘못 들어 새길로 들어갔는데, 이를 인식했을 때는 어디인지 자신도 모르는 적적한 큰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중략) (선녀) 각자 옷을 벗고 물가 나무 가지에 걸치고 눈처럼 새하얀 빛나는 살을 들어내고 물속에 들어가 매우 기분 좋게 여기저기 헤엄쳤습니다. 이를 보고 효자는 그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중 하나를 취해 나무 뒤에 감추고 자신도 나무 뒤에 숨어 여자들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중략) (“(중략) 그럼 당신은 천도라는 것을 지니셨나요? 지니셨다면 부디 저게 주세요. 만약 주신다면 옷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중략) 효자는 지금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곤란함을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들 듣고 선녀는 효자의 마음을 깊이 가엾게 생각해 하나라도 좀처럼 어려운 것을 3개나 주었습니다. (중략) 효자또한 천도를 얻었기에 기뻐서 뛰며 집에 돌아와 바로 이것을 아버지께 드리자 것처럼 심했던 아버지 중병이 바로 나았습니다. 아들도 하나를 먹고 부자는 불로장수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를 마당 소나무 뿌리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소나무는 갑자기 변해 매우 생생해졌습니다. (후략)</p>	<p>26복숭아 열매 옛날 매우 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오랫동안 누어 있는데, 가난해서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날 그 아들은 “좋은 약이 필요해.” 하고 생각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어느 사이에 큰 강가에 왔습니다. (중략) 선녀는 옷을 벗고 물가 나무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기분 좋게 헤엄쳤습니다. 아들은 선녀가 병을 잘 낫게 하는 복숭아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숭아 열매를 받고 싶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선녀 옷이 강에 날라가려 했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그 옷을 주워 선녀가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중략) 선녀는 기뻐하며 “답례로 뭘 드릴까요?”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중략)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가난해서 좋은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도와 주세요.” 선녀는 가엾게 생각해 복숭아 열매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중략) 아들은 바로 집에 돌아와 천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병은 바로 좋아졌습니다. 끝</p>

<표 8>처럼, 다나카는 함경북도 회령군 보고를 참고로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천도를 얻은 효자와 더불어, <소나무가 상록수가 된 연유>라는 모티프가 포함된 북한 설화이다. 아시다는 2학년 2학기 교과서 배치해 <복숭아 열매>로 개작했는데, <소나무가 상록수가 된 연유>라는 모티프를 생략하고 간결하게, 효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신적 교재로 개작했다. 중요한 사실은 원래 설화는 효자가 천도를 얻기 위해 선녀 옷을 의도적으로 취한데 비해, 아시다는 바람이 불어 이를 구한 것으로 개작하였다는 점이다. 아시다는 교과서라는

점을 의식해, 효자의 절도행위를 수정했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총 7편의 공통의 설화를 고찰한 결과, 다니카의 『조선동화집』은 조선 최초의 근대 동화집으로서 1910년대 학무국에 제출된 조선 설화를 원자료로 하여, 그 내용을 개작해 아동의 동화 교육을 위해, 감정을 이입시켜 교훈적인 이야기로 형상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조선총독부 일본어교과서를 편찬한 아시다 편수관은 교과서 교재로, 설화 내용을 학년의 배열과 서술의 제한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특히 저학년 교재에서는 원자료의 전반부 혹은 후반부를 생략하거나, 수신적 교재로서 형상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티브를 적절히 취사선택하였고, 거짓말하는 부분 등을 수정해서 교재화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시다의 개작양상을 실증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에서 동시기에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행해진 『조선동화집』과 조선총독부 일본어 교과서 수록 설화를 가능한 한 찾아내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각각의 자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검토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 5. 結論

본고에서는 제 2기 조선총독부 국어(일본어) 교과서 『보통학교 국어독본』(1923-4)를 직접 편찬한 아시다 에노스케(芦田惠之助) 편수관과 그가 개작한 조선동화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조선총독부 편찬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교과서 편찬자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요청된다.

아시다는 1873년 효고현에서 태어나 고향하며 1899년 동경고등사범학교 부속소학교 교사가 되어 1917년부터 문부성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후, 이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 편수관으로 임명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21년부터 1924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편수관으로 근무하였다.

아시다독본에는 십여 편의 조선설화가 수록되었는데, 그 중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동화집』과 중복되는 공통의 설화는 7편이다. 특히, 아시다가 수록한 민담 모두가 『조선동화집』에도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그 후대의 영향력이

웠다고 고려된다. <만수>와 <은혜 모르는 호랑이>는 1917년의 잡지에서 그 원전을 확인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개작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17년의 잡지를 통해서 원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공통되는 설화는 <범보다 무서운 꽃감>, <세계의 보물>, <거북이 사산>, <사이좋은 형제>, <복숭아 열매> 5편이다. 본고에서는 공통되는 설화 7편의 분석을 통해, 1920년대에 행해진 설화의 개작 양상을 고찰하였다.

총 7편의 설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나카의 『조선동화집』은 조선 최초의 동화집으로서 1910년대 학무국에 제출된 조선설화를 원자료로 하여, 그 내용을 개작해 아동의 동화 교육을 위해, 감정을 이입시켜 교훈적인 이야기로 형상화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조선총독부 일본어교과서를 편찬한 아시다는 교과서 교재로, 설화 내용을 학년의 배열과 서술의 제한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특히 저학년 교재에서는 원자료의 전반부 혹은 후반부를 생략하거나, 수신적 교재로서 형상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티브를 적절히 취사선택하였고, 거짓말하는 부분 등을 수정해서 교재화 했다는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 <参考文献>

- 김광식(2012) 『조선총독부 편찬 일본어교과서 『국어독본』의 조선설화 수록 과정 고찰』 『연민학지』18집 pp.95-97.
- 김광식·이시준 「다나카 우메키치와 조선총독부편 『조선동화집(朝鮮童話集)』 고찰」 『일본어문학』 61집, 2013. p.228, pp231-237, p.238.
- 김광식(2013) 『일본 문부성과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구비문학 조사와 그 활용—1910년대, 1920년대 편집과 관계자의 경력을 중심으로』 『연민학지』20집 pp.256-262, p.264.
- 鶴見俊輔(1957) 『まわり道をとうって』実践社編『回想の芦田恵之助—その人と業績』 実践社 pp.76-77
- 大塚浩(1993) 「蘆田恵之助編纂『普通學校國語讀本』の海外受容—『大学生のための初等日本語』(Elementary Japanese for University Students)の考察を通して」 『国語科教育』40 p.123.
- 芦田恵之助(1924) 『尋常小學國語小讀本卷一編纂趣意書』 芦田書店 p.4.
- 芦田恵之助(1924) 『尋常小學國語小讀本』卷三 『芦田恵之助國語教育全集』13, 明治図書, 1987 pp.85-88.
- 芦田恵之助(1925) 『第二讀み方教授』 『芦田恵之助國語教育全集』7, 明治図書, 1987

p.417.

芦田惠之助(1950) 『惠雨自傳』 『芦田惠之助国語教育全集』25, 明治図書, 1987 p.204.  
朝鮮總督府(1925) 『普通学校国語讀本卷六編纂趣意書』 朝鮮總督府 p.20, 27, 36, 37.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 &lt;Abstract&gt;

**The study on an editorial officer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shida Enoske and the children's stories of Chosun**

This article aims to study on an editorial officer, Ashida Enoske, who compiled the Japanese language textbook Primary School Reading Book of the second Government General of Chosun and his adaptation of the children's stories of Chosun. Given that the studies on the textbook compiled by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un is continuing recently, it is required to study on the children's stories empirically on the basis of the editorial officer's explanation. Ashida was born in 1873, and in Hyogo. He became a teacher in a primary school affiliated to Tokyo higher normal school. He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of the government-published textbook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1917.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s, He was named an editorial officer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He served as an editorial officer in the education and management bureau of the Government-General from 1921 to 1924. Ashida reading book contains dozen of Chosun tales, among those, 7 tales are duplicated in Chosun children's stories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Especially, in respect that all of Ashida's adaptations are contained in Chosun children's stories, it is certain that he had great influence with coming generations. The original text of "Mansoo" and "an ungrateful tiger" is verified in the 1971's magazine and the concrete aspects of adaptation are confirmable. Unable to verify the original text in that magazine, the rest of the common tales in two books are "the dried persimmon scarier than a tiger", "three treasures", "an ambassador turtle", "footsie brothers" and "peach". In this article, I studied concrete aspects of the modification adapted in the 1920's.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shows that Chosun's first collection of fairy tales, Danaka's Chosun children's stories was in reference to Chosun's tales submitted to the education and management bureau in 1910s and modified the originals to the cautionary tales for the juvenile story education. In comparison, Ashida who compiled Japanese language textbook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converted the contents of the tales to teaching materials, particularly in the lower grades' textbooks, omitting the first half or the second of the original stories, adopting or rejecting requirable motif and revising "the lying part", etc.